

01 교회소식

섭리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인간 경작의 모델이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사랑할 뿐 아니라 영혼 사랑이 중요하다.

03 기획특집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나니

영의 마음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마음 중심(中心)이란 무엇이며 중심에서 비롯된 행함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04 간증

“주님을 앙모합니다~”

척추 골절을 치료받은 케냐 야곱 성도와 사모하던 영의 마음을 이루니 영혼 사랑이 승해졌다는 이영진 권사 간증.

# 만민뉴스

제695호 2015년 7월 1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다!

### 말씀과 권능, 믿음과 사랑으로 일군 이스라엘 선교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교회가 부흥을 이루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만민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리 낯설지 않은 나라이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나라이름은 물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교계와 성도들의 간증들을 단에서 종종 듣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계의 초청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 회장이 이스라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는가 하면, 매년 열리는 찬양 페스티벌에서는 우리 교회 공연팀이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회 창립, 수련회 등 우리 교회의 각종 행사 때는 물론 평소에도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이스라엘 목회자와 일꾼들이 수시로 방문한다.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인연은 개척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7월 25일, 개척 예배를 드린 이후 하나님께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대성전 건축과 더불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역을 하게 됨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다.

이에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품고 무수한 기도를 쌓아온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2007년 7월 25일,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첫 집회를 인도했다.

이스라엘 선교팀은 3년간 12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이파, 아슈도트, 베들레헴, 예루살렘, 아슈켈론, 브엘세바, 예일랏, 텔아비브, 나하리야 등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24번의 집회와 3번의 목회자 세미나, 10여 차례의 목회자 모임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만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이 목사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불치병과 암, 심장병, 간질, 당뇨, 우울증 등을 치료받고 마약에서 해방되고 임태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전파됐으며, 이는 이스라엘 최고위층 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스라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

돼 있으나 국민 대부분이 유일신 여호와를 신봉하는 유대교인이다. 이재록 목사와 선교팀이 이스라엘에 첫발을 내디딜 당시, 극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었고, 목회자들조차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반문할 정도로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방문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이재록 목사의 진정성 있는 선교가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목회자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목회자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점차 힘을 얻고 하나되기 시작해 결국 자발적으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을 조직했고, 이재록 목사를 감사로 초청해 ‘2009년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큰 열매를 맺었다. 당시 성회는 22개 방송사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는데, 현장에서는 물론 방송을 통해 참석한

수많은 사람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담대히 선포하는 이재록 목사의 모습과 성회 시 나타난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12개 지교회와 20여 개 협력교회가 세워졌으며, 성도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19:11~12)을 통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응답받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또한 CMTN, TBN 러시아, CNL, 훌리갓 TV, 로드노이 등 방송과 『십자가의 도』, 『깨어라 이스라엘』 등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된 이 목사의 신앙서적, ‘만민뉴스’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포럼이 매년 찬양 페스티벌 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며 이스라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성령의 사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끝없는 사랑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인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  
(마태복음 22:37~39)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여 마음에 서운함이 틈타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며 기도와 충성도 멈춘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려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단 3:17-18).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을 뿐 아니라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서운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내 생명보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요?

이런 사람은 범사에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것을 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먼저 생각하지요. 일꾼이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지요.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이상 부러운 것이 어디 있으며 아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 주시며 우리의 소원마다 응답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 2.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사랑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생명의 꼴로 양 떼를 먹이며 진리의 본을 보이는 참된 목자를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목자와 양 떼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 떼의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했지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갈 4:15). 또한 사도 바울을 돕는 제자들 역시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지요.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 했고, 빌립보서 2장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그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진실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스승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고 스승의 소원이 곧 자신의 소원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곁에서 힘과 위로가 됐으며, 혹은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를 찾다니며 성도들의 믿음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영혼이 구원받고 성결돼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진정 목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다른 영혼을 구원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자 능력과 권능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 3.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의 신앙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영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면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해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음에 선이 있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찌하든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을 부지런히 심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힘써 구제하고 섬기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29절에 보면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위한 이런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마 22:37-3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자신을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하나 되며, 다른 영혼들에게도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해 마음 중심에서 정녕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 1. 무엇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명예, 권세, 물질 등을 더 사랑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간절히 소원이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열심히 충성도 합니다. 은혜와 감동이 임할 때는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 리 은 행 :**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중심(中心)을 보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다(삼상 16:7).

속담에도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중심에 따라 마음 씀과 말과 행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이 함께 있으므로 수시로 변하지만, 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므로 중심에서 나온 행함이라야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다.

## 중심(中心)이란 무엇인가?

‘중심’이란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 새겨 굳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의 힘이 된다. 이러한 중심은 선천적으로 부모의 기를 통해 물려받은 분야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각 사람이 스스로 마음 안에 무엇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겼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또한 중심이 진실한 사람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심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평소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막상 극한 상황이 오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음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곧은지 등에 따라 각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선한 것 같은데 마음먹은 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그리 선하지 않아도 일단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변개치 않고 이뤄내기도 한다.

따라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벗어내고, 진리에 속한 것들만 마음에 새긴다면 진실하고 온전한 중심을 이룰 수 있다.

##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에서 좇는 온전한 중심이란?

### ■ 항상 기뻐하는 중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극적으로 모든 죄를 사면받고 자유의 몸이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의 기쁨을 중심에 온전히 간직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연단을 받는다 해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내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므로 중심 속에 굳혀진다. 그러니 혹여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아버지는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는 믿음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 ■ 범사에 감사하는 중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작받는 자녀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재료들로 만드시고 영원토록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해도 결코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에 마음 중심 속에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매우 많다. 마음 중심 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꼭 무엇을 응답받고 축복받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사랑하고 안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감동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고자 불같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 ■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는다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대하 7:15 ; 마 18:20).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 또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기도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도움을 구할 때 상대의 진심이 느껴지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어찌하든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렘 33:3).

진실한 기도로써 하나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의 기도와 감동을 드리는 선한 기도를 올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신속하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온전한 중심 속에서 우리나라 헌신과 충성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진한 사모함으로 이룰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행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기 바란다.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10-14
- 하나님의 뜻 1
- 일곱교회 6-10
- 하나님을 만나려면
- 믿음의 분량 26-27
- 지옥 7-11
- 신앙생활 쉽게하기 2
- 축복 6
- 요한계시록 강해 1-3
- 요한일서 강해 24-30
- 성령의 9가지 열매 1-4

#### GCN TV설교

- 열매 (이수진 목사)
- 교만 2 (이미영 목사)
- 빛의 열매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0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13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9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9 (김수정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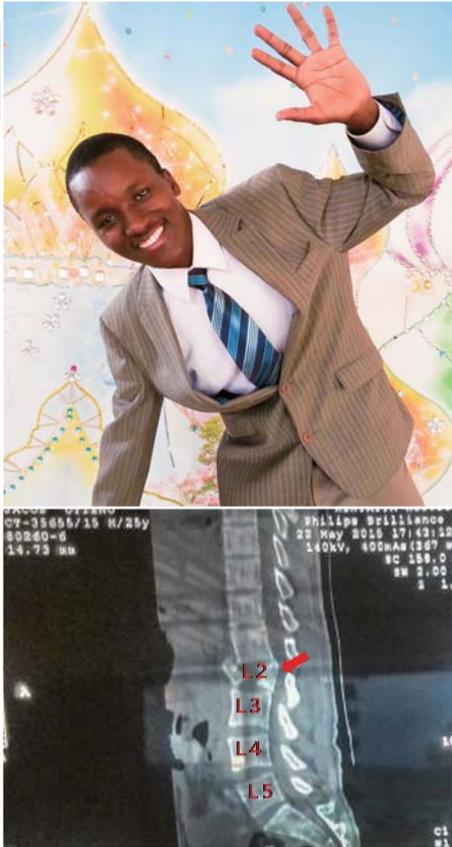
####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7
- 옛날 옛적에 5
- English 15
- 즐거운 요리 26
- 내 마음의 찬양 15
- 흥겨운 소리 6
- 창조와 과학 12
- 모두 드려요 32
- 뷰티플러스 11

#### 해외성회 프로그램

- 독일 연합대성회 1
- 회상 19

2015 July  
2015.07.19~07.25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요추 2번이 앞뒤로 완전골절되고 골편이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었으나 기도받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척추가 골절됐으나 기도받은 뒤 잘 걷고 땀입니다”

야곱 오티에노 오장 성도 (26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2009년 8월, 저는 노방전도를 나온 나이로비만민교회 윌리엄 와나마 부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2014년 4월에는 교회 직원으로 근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23일, 저는 옹가타 롱가이 지성전 이전을 위해 4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일하다가 목재가 부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등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일꾼들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게 도와주었고, 그 뒤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척추가 골절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믿음

으로 치료받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거나,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정명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까지 질병이 치료되고, 수술을 하지 않고도 후유증 없이 신속히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인 3월 24일, 저는 정명호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 마비된 다리와 허리에 감각이 느껴졌지요. 병원 측에서는 신기한 일이라며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허리 벨트를 착용하고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기도를 해 주신 후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의무감 속에 때로는 불평하며 일했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회개했습니다. 정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저는 3월 31일에 믿음으로 퇴원했고,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심방하신 정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는 힘이 주어져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후 급속도로 회복돼 4월 23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지난 5월 22일, 정밀검사를 위해 케냐타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잘 걷고, 건강한 제 모습을 본 의사선생님은 매우 놀라워하셨지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정명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닦아가는 삶, 참 행복해요”

이영진 권사 (57세, 2대대 14교구)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저는 1983년 결혼한 후에도 구역장의 사명을 맡아 5명이 30명으로 부흥할 만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한 가지 넘지 못할 산같이 느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님과 갈등이었지요. 그 당시 남편이 시아주버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데다가 보증을 서준 일까지 잘못 돼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님이 여생을 막 내아들인 남편과 사시겠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일 년 후에 모시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욱이 남편 뒤편의 유산까지 시아주버니가 가져가 쓰셔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셨기에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은 커져만 갔지요.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에 자주 부딪히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은 여전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제가 수년간 기도해 온 참 목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했지요. 1997년 7월, 저는 희열을 느끼며 우리 교회에 등록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우쳐 가니 시어머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미움이 벗어나 갔습니다. 2년 뒤에는 시어머님에게 치매 증세가 오고 대소변을 받아야 하

는 상황이었지만 도리를 다하는 선한 며느리가 되고자 힘썼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님이 사랑스럽게만 보였고 못 다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2002년, 치매를 앓던 시어머님이 소천하시자 시댁 식구들은 제가 천사 같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구역장, 조장을 거쳐 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2005년, 여동생 이영심 권사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도 없이 죽음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마침 금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라 저는 막내 여동생(이영경 권사)과 함께 응급차에 이영심 권사를 태워 당회장님께 나아가 기도를 받았습니. 그러자 의식이 돌아와 깨어났고, 이를 뒤 주일에 기도를 받은 후에는 손발을 움직일 수 있었지요. 동생이 통회자복을 하고 또 한 번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온전히 회복됐습니. 그 뒤로 지금까지 동생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2008년부터는 여지역장연합회 부회장의 사명이 주어저 저는 나름대로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영적 성장이 더딘 제 자신을 발견하며 그 원인을 깨우치게 됐지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했고, 주위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에 스스로 착하다는 착각 속에 마음의 할례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이에 금식과 기도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마음의 할례를 하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지역 식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자 힘썼지요.

그러하여 2014년 3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용서와 사랑이 앞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역장과 지역 식구들을 심방하니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 주님의 선과 사랑을 깨우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이영진 권사(왼쪽)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으로 죽음 직전에서 소생한 동생 이영심 권사(오른쪽)와 함께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자매회,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림.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6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4)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안로 22, 연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3)766-1535, 010-9108-207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